

정부, 한미 FTA 보완대책 실효성 있다

‘땀질 보전’... 경쟁력 키울 해법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을 앞두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농업과 제조업 등에 대한 피해보완 대책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보전하고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융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피해를 보는 부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대책은 피해보전에 초점 =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대책은 우선 농업 등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해 소득감소분을 지원해주는 등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정부연구기관 합동 영향

FTA 발효 후 농·수산·서비스업 현장 점검 국내 시장 지킬 중장기 육성 방안 마련돼야

평가에서 FTA로 인해 농업은 생산규모가 연평균 6천698억원 줄어든다고 수산업도 연평균 2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시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이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 비율을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는 것이나 폐업지원금 지원, 농업 전문 사모펀드 조성,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확대 등은 대부분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정부가 그 손실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향이다.

정부는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피해 품목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고 폐업하는 농업인에게는 5년간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되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업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신약 연구개발(R&D)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피해규모도 영향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FTA 발효 후에도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 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이 중요 =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대책이 함께 나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경쟁력 향상 방안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피해보전을 믿고 일선 현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밀려드는 해외제품에 우리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에 집착하지 말고 농업이나 수산업,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베트남 빈증성 벤켄현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베트남 고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베카맥스 산업공단 회장(왼쪽부터), 응위엔 호앙 선 빈증성 성장,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 민영우 베트남 총영사, 금호타이어 오장환 부사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베트남 고무 공장 준공

연간 타이어 600만개 생산 분량 1만1천 개 생산

금호타이어는 베트남에 타이어의 주원료인 고무를 생산하는 고무 가공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베트남 빈증성에서 오세철 사장과 응위엔 호앙 선 빈증성 성장, 응위엔 반 흥 베카맥스 산업공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

트남 고무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금호타이어가 그동안 400만 달러를 투자해 완공한 베트남 천연고무 가공공장은 연간 타이어 6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1만1천개의 생산규모를 갖췄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고무공장 건설이 타이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사업성을 검토해 현 베트남 공장 부지에 천연고무 가공공장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 빈증성에 연간 315만개 규모의 타이어 공장을 건설중이며, 이번엔 완공된 고무 가공공장에서 천연고무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다.

건자재 생산업체들 경영난

광주·전남업체 68%

자재·인건비 상승 탓

광주·전남지역 건자재 생산업체들이 과도한 자재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강영태)는 184개 건자재 생산업체(아스콘·레미콘·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경영여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7.9%가 현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이 괜찮다'고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영상태가 어려운 요인

(복수응답)으로 자재비용 및 인건비 상승(68.4%)을 첫손가락에 꼽았으며, 공공수주량 감소(46.1%), 저가수주로 인한 채산성 악화(2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 업체는 올 하반기 건설경기에 대해 대부분 '악화된 것'(65.2%)으로 전망했다.

경영여조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준수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완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대졸초임 연봉 2,580만원

서울·광역시 중 6위

울산 2,872만원 1위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이고 광주는 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정보 제공 전문회사 페이오픈(payopen.co.kr)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모두 7개 도시내 100인 이상 사업장 1천693곳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울산의 대졸 신입 초봉이 2

천8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이 2천737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대전 2천699만원, 대구 2천697만원, 인천 2천677만원, 광주 2천580만원, 부산 2천51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급 연봉도 울산이 평균 3천7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3천663만원), 서울(3천567만원), 대전(3천566만원), 대구(3천548만원), 광주(3천270만원), 부산(3천42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증권사 신용거래 고객별로 차등화

증권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용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거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들은 7월13일까지 증권사별 신용투자 규모를 5천억원 이하 또는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줄이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8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8일 14개 증권사 영업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의 금융거래 현황과 매매현황 등 고객별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신용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첩은 앞서 지난해 11월 선물·옵션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차등 적용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중첩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고객별 신용공여 한도 설정기준과 고객별 보증금, 담보유지비율 설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첩은 또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신용거래 반대매매 때 고객이 통보하지 않고 강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외국의 사례들을 감안해 신용거래 반대매매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고객권 도안 발행전 공개검증 거쳐 확정

한국은행은 고객권 지폐의 인물·소재도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잠정시안을 일반에 공개해 전문가 등의 공개검증을 거쳐기로 했다.

이는 작년초부터 단계적으로 발행된 새 1천원, 5천원, 1만원 지폐의 도

안에 관해 사후 논란이 벌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도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심각한 오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발행 예정인 5만원, 10만원 고객권의 인물소재와 보조소재 선정에 포함할 행적절차를 오는 9~10월중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현재 인물소재 선정을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 작업이 진행중이다.

농협중앙회 새 임원 선출

농협중앙회는 28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박석휘(63) 농민신문사 사장을 전무이사에 선임했다.

또 신용 대표이사에 정용근(59) 현 대표를 유임시켰고, 농업경제 대표이사에 김경진(57) 농업경제담당 상무를 임명했다.

농협은 또 박상우·박진규·이지복 등 이사 3명을 임명하



〈박석휘 전무〉 〈정용근 대표〉 〈김경진 대표〉

고, 박용순 전남지역본부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HP는 Windows Vista® Home Premium을 권장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HP 파빌리온. HP 파빌리온은 윈도우 비스타를 권장합니다. 그만의 HP가 연구와 설계한 '가운데' 센터를 만들어 두가지 PC를 이용해 사용합니다. 영화, 음악, 게임, 그리고 교육까지. 이제 HP 파빌리온과 함께 더 큰 즐거움을 누리세요. HP 파빌리온 dv5507a 노트북 PC. HP 파빌리온 v7046k 데스크탑 PC.